

“혁신도시 부영 잔여지 아파트 용도변경은 엄청난 특혜”

5328가구 신축 댄 최소 5000억 이익...절반 사회 환원해야
아파트값 하락·학급 과밀화·녹지 감소 등 주민 피해도 극심
토론회서 도시계획 전문가·교수·주민 등 한목소리 촉구

부영주택(주)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5328가구 규모 고층 아파트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부영 측이 얻게 될 개발이익이 최소 5000억원”이라며 “기대 이익의 최소 절반은 지역사회에 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왔다.

도시계획 전문가와 혁신도시 주민들은 부영 측 사업에 대해 “법과 제도를 따져볼 것도 없이 상식으로 봐도 엄청난 특혜”라고 규정하면서 “혁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학급 과밀화, 녹지 감소 등에 따른 주민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또한, 인허가권자인 나주시,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을 향해선 “더는 금액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가칭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익확대추진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후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익 확대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경실련, 광전노협, 광주전남 혁신도시포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가 공동 주관자로 참여했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지리학박사)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부영 측이 추진하는 사업은 애초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없

던 것”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부영 측 계획대로 토지 용도 변경과 5328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아파트 초과 공급 ▲녹지 및 공원 비율 축소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혁신도시는 애초 가구 2만호, 인구 5만명 규모를 갖는 도시로 계획됐다”며 “그러나 부영 측 사업이 추진되면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규모만 보더라도 2만3270가구가 돼 계획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공원·녹지 면적 또한 기존 35.1%에서 24.9%로 축소돼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조진상 동산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광주시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 부영 측 사업은 한전공대 부지 기준 행위를 잠작하더라도 공공 기여가 크게 미흡하다고 주택발표를 통해 밝혔다. 조 교수는 “광주 민간공원 사업의 경우 전체 공원을 건설사가 매입한 뒤 9.7%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90.3%는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라며 “부영골프장의 경우 부지 면적 기준, 공공기여가 광주 민간공원 사업의 59.0%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 기부 부지가 2010년 매입 당시 200억원 수준으로 현 시세를 적용하면 800억원”이라며 “그러나 용도지역 변



(주)부영주택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절반기량을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땅에 아파트 5000여가구를 짓겠다고, 나주시에 토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한전공대와 아파트가 들어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경만으로 부영 측이 얻는 기대이익은 최소 5000억원이다. 개발이익의 50%는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등 주민들은 부동산 폭락을 걱정했다.

장재영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토론회에서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 추가 공급은 부동산 폭락을 의미한다”

며 “아파트 공급 외 다른 방식이 있는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로 나선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회(건축사)는 “한전공대 부지의 무상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따지지 않더라도 엄청난 특혜”라며 “끌려만 다니는 나주시, 전남도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

다. 부영그룹을 향해서는 “돈벌이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하는 것이 이종근 회장의 경영 철학인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부영주택(주)은 한전공대 부지(40만㎡)로 기증하고 남은 빛가람동 908번지 골프장 잔여지 35만 2294㎡에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려고 토지 용도 변경(자연녹지→3종 일반주거지역)을 추진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9개 업체 “신안 해상풍력에 6500억원 투자 하겠다”

전남도에 제안

전남도가 해상풍력 기자재 관련 제조업체들로부터 모두 6500억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 이들 기업들은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돼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투자를 제안한 9개 제조업체는 터빈, 하부구조, 타워 등 해상풍력의 주요 기자재를 생산중인 두산중공업(주), 유니스(주), 효성중공업(주), (주)휴먼컴퍼티트, 현대스틸산업(주), (주)세아제강, 대한전선(주) 등이다. 이번 투자제안으로 전남도가 주도하는 지역균형뉴딜

과 해상풍력 노사민정이 참여한 ‘전남형 상생일자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투자 제안은 터빈부드 하부구조, 해저 케이 블까지 이어진 해상풍력 국내 기자재 생산 밸류체인으로 구성돼 향후 지역 내 연관기업 육성은 물론 잠재된 전남 서남권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업종 전환 및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전남도는 투자유치를 위한 9개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후보지 제시, 해상풍력 발전사와 협의를 통한 물량확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을 통해 추진될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이 투자되며, 450개의 기업 유치·육성을 통한 11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그동안 한국전력, 민간발전사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 1단계 발전사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9월 전남도와 신안군, 신안군수협, 어민단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또 11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 2개 업체와 61~62번째 협약

광주시는 17일 ㈜이스트소프트, ㈜영우디지털과 각 회사 서울 본사에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61~62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별 지역사무소, 연구소 및 교육장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이스트소프트는 알뜰즈, 알약 등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주요 제품은 ▲인공지능 기반사업(커머스 분야 AI, 기업활동 AI, 카메라 기반 AI) ▲소프트웨어 분야(알뜰즈-알집, 알씨, 알PDF 등) ▲보안분야(알약PC-모바일), Threat Inside(딥러닝 기반 악성코드 위협 대응 보안 솔루션), 시큐어디스크(문서보안솔루션) 등이 있다.

㈜영우디지털은 종합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며, 주요 제품은 Oracle, Microsoft, CISCO, IBM, Dell, RedHat 등 27개 Global IT Vendor 및 AWS, Oracle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스트소프트는 S/W, 보안, 커머스 등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에서, ㈜영우디지털은 인공지능 서비스 및 IT솔루션 분야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광주에 지역 사무실과 연구소, 교육장 등도 설립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의회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최우수’ 선정

국민권익위 발표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중·사진)가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 이어 올해도 2등급을 얻어 2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의회는 7.42점으로 2등급을 얻었다.

청렴도 측정 대상은 전국 65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 기초의회 48)다.

청렴도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직원, 지역 주민, 직부관계자, 경제

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2만 52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남도의회는 의정활동 영역과 의회운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중 의장은 “종합 청렴도 2등급은 전남도의회 공직자는 물론 도민 모두가 정당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라며 “앞으로도 전남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운천호수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2년 이용 제한

광주시내 벚꽃 명소인 운천호수공원 이용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일부 제한된다.

17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서구 상촌동 운천저수지에 담긴 물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이달 초 바닥을 드러냈다.

운천저수지에 담긴 물은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운천저수지 아래를 지남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제거됐다.

공사로 인해 운천호수공원 내 인공섬과 목조 통행로의 이용이 제한되며 주변 산책로는 공사여건에 따라 이용여부가 조정된다.

운천호수공원은 오는 2022년 9월까지 물이 빠진 상태로 유지된다. 운천저수지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00명인 도심 휴식처로 벚꽃이 피는 4월에는 하루 방문객이 1만명에 달하는 명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